

#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 좋은 올리브유처럼



김홍식 장로 / AFF USA 이사장

올리브 나무에서 좋은 기름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으깨지고 짓눌러지는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도, 받기에도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자께서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핏방울을 흘리시며 사랑을 짜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옆에서 들었던 올리브 나무는 계속 좋은 기름을 내어 주었고 그 향기뿐 아니라 구원자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전파된 사랑은 오랜 역사 속을 흘러 백여 년 전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조선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던 조선은 새로운 빛을 보았고, 어두움과 무지는 깨우쳐지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입국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 남북장로교회, 남북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등이 한국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곳곳에서 학교를 세워 새로운 학문을 깨우치고, 병원을 세워 질병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땅에 묻혀 마지막 사랑을 쏟았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는 그들의 아낌 없는 헌신을 만날 수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육을 받은 조선의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를 복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깨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된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에 특별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이루었고 다시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들의 성품이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웠고, 그같은 일은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은 또다른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올해가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민의 역사도 시간이 깊어지면서 이제 이민 3세, 4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양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땅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 있는 느낌이 문득문득 듭니다만 아주 조금씩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뿌리를 통째로 옮겨다 이 땅에 심은 삶은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적혈구들이 날라다주는 산소를 받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주는 세포 안의 모든 대사 공장들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세계의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대자의 은총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댐에서 새는 작은 구멍을 막아냈던 어린 소년처럼, 매일 작은 걸음이 큰 도약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갔던 선구자들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세계의 이웃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올리브가 으개어져 기름을 내듯 우리의 모든 것을 짜서 드리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르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꼬옥-맞는 아미재의 사업이 있을 거라 자부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NGO 아미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우리의 사업은  
[르완다 나누리 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아미재가 지원하는 나누리 병원은 햇수로 어느덧 2년 차가 되었는데요.

르완다 나누리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지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 무료 진료와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실현하는 당신,

[르완다 나누리 병원 운영 지원 사업]과 찰떡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⑦

**르완다 나누리 병원 지원 사업**

AFF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⑦

**나누리 병원**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2014년 이래로  
현지 공립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상 치료와 생필품을  
제공해오던 중  
20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AFF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⑦

**나누리 병원에서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와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FF

4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⑦

또한 코로나로 인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 식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상황 속,  
희망을 전했습니다.

AFF

5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⑦

AFF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에티오피아



안녕하세요, 아미재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아미재의 사업을 알아보는 시간도  
어느덧 반절이 지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당신과 AFF 사업의 운명적인 만남,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구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 (가보자고)  
'그'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지원 사업]

지난 2004년 에티오피아에 건립한 명성병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미재는 지난 한 해 명성병원에 초음파, 내시경 시스템,  
혈액투석실, 수술실 장비 유지관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다면 한다! 진취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당신이라면?

AFF의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지원 사업]과 제법 잘 어울려요~

**1**

##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①

###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지원 사업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②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명성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에티오피아 의료 전문인 양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지난 한 해의 경우, 초음파, 내시경 시스템, 혈액투석실, 수술실 장비 유지관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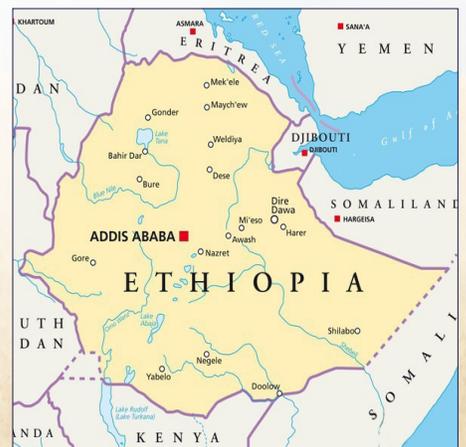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생활비 지원 등 에티오피아의 더 많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5**

##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⑤

사진 출처: 조선일보



# 말라위의 새 우물

백영심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아보니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 땅을 밟은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위 중부 리롱케 수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말라위 북쪽 롬피 지방 볼레로 마을에서 새우물을 파게 하시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볼레로 마을 정부에서 약 6만 평의 부지를 받고 작년 6월 4일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하 가운데 첫 삽을 뜨고 시작된 학교 건축도 일 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말라위에 살았지만 북쪽은 또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새로운 선교지로 옮겨온 듯 새롭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사역을 위해 곳곳에서 이상덕 장로님과 최철수 집사님, 그리고 한봉연 사모님, 귀한 동역자님들을 불러모아 보내주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동역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철수 집사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해주셔서 학교 건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한봉연 사모님께서서는 센터의 유치원 아이들 책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 건강위해 급식을 제공하시며 위생교육 등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며 즐겁고 행복해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덕 장로님께서서는 매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공급하여 주시며, 누비리센터 옆에 있는 예배당을 리모델링하여 주셔서 땅바닥에서 예배드리던 누비리교회를 깔끔하게 바닥 공사과 창문, 교회 의자 등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없던 주일학교를 새로 만들어서 주일학교도 100여 명 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를 옮겨 놓으시고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동과 교사 숙소동 건축에도 필요한 재정뿐 아니라 일꾼도 보내주시고 주님이 일해나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척박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의 자녀들로 잘 교육받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함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말라위에서 백영심 선교사 올림.

## 백영심 선교사 말라위 여고와 대학 설립 큰 진척

아프리카미래재단 협력 말라위 백영심 선교사가 추진하는 여자 고등학교 공사가 큰 진척을 이루고 있다. 백 선교사는 간호사로서 1990년 28세의 나이에 케냐로 건너가 잠시 사역한 후 말라위로 옮겨, 33년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와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말라위의 치무왈라에서 교육기관과 진료소를 세웠고, 2008년 리롱케 지역에 2010년 대양상선 후원으로 대양누가병원, 대양간호대학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프리카미래재단의 말라위 사업 프로젝트와 긴밀한 협력으로 말라위 모자보건 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백영심 선교사는 말라위 현지에서 The Seeds라는 NGO를 설립하여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잘리라(Jalira) 여자고등학교와 대학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강의동과 행정동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오는 9월에 준공하고 신입생을 모집, 개학할 예정이다. 그는 2001년 대한적십자사 인도장 금상을 비롯하여 2015년 호암상 사회봉사상, 2020년 성천상, 2021년 인도장 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밖에 나가면 얻는다

김세현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먹거리가 많아서? 아니면, 사파리를 할 수 있어서 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오남 지역에서 야외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동 마이크와 키보드를 싣고 이동해 넓은 마을 공터에서 전도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름한 텐트를 치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굽주린 자들이 모여듭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 보지도 못한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이 그냥 다니는 자들, 다양한 자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강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 마치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현상과 같이 말입니다.

300명이 모인 군중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토요일 집회에서 127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들 사는 마을 가까운 곳 교회 가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 첫 예배에 63명이 이제 시작되는 Genwot 교회 등록을 합니다. 모였습니다. 펼쩍 펼쩍 뛰면서 찬양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희망입니다. 땀 흘리고 옷을 버리고 먼지 나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쁩니다. 마냥 좋기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믿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비록 앓을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의 햇빛을 가릴만한 천막조차도 없습니다. 그 흔한 망고 나무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웃습니다. 왜요? 주님이 크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공황을 베푸소서! 성령님. 여기를 주목하여 주세요. 광야 같은 빈들입니다. 빈들이기에 주님만 더욱 집중합니다. 여기도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나가면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나가기만하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들이 있지만 시골로 들어갈수록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거나, 믿음의 확실한 기초도 없이 쉽게 사탄의 꾀임에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달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내 손에 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명을 느낍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의 제목이 “나의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 선교사는 “나는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겨우 10살이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무슨 기도를 세계 해 보았다고 ...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직 복음 때문에 16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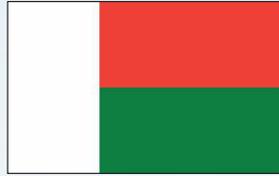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끝까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기도 중보자 여러분! 함께 걸어 갑시다. 잃은 자를 찾는 일이라면... 한 사람을 찾아서 걸어가 봅시다.

## 기도제목

1. 십대들이 60%가 넘는 우간다. 두 군데 어린이교회 참가자가 매주 토요일 600-700명 정도 되는데 말씀으로 훈련 잘 받아 우간다의 미래를 이어가는 자들이 나오도록.
2. 야외전도 집회 후 생겨지는 교회에 기도훈련, 말씀훈련으로 제자가 생겨지고, 또 필요한 교회 건축 등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
3. 에스라 신학교가 북부 지역의 유일한 신학교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성경 각 권 공부가 3년간 이루어 지는데, 영적인 무기인 성경지식을 바르게 배워서 교회마다 개혁신앙으로 든든히 서도록 기도.

#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편지

이재훈 · 박재연 선교사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 따라 행복하게 나아갑니다.

## 팀 소식

“정결케 하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며 함께 하나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팀이 되도록 주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태식, 유진아, 장연재 선교사님 가정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닥터 발리수아, 닥터 미라가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팀이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1. 한국과 미국 방문

진행이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한국과 미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4월 말~5월 말). 미국으로 진행이가 대학 진학을 하면서 마다가스카르를 미국에 소개하고 도울 통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지난 6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들을 돌보아주시고 마다가스카르 사역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행이는 먼저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입대(공군어학병 7월 21일 2차 면접시험) 전까지 한국에서 외할머니와 누나랑 지내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2. 코이카 사업 시작

오랜 기다림 끝에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20명의 교육생들을 선발이 완료되었으니, 4개의 훈련병원들과 협조, 교육 후 보내질 지역 병원까지 확정하여 속히 시작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아 6월 2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론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바로 선정된 4개의 훈련병원으로 교육생들이 나뉘어 2주간 실습하고 일 주 쉬고 다시 2주간 실습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5회 반복하는 것을 1학기로 이렇게 4학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역이다 보니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2주간 4개의 병원들을 돌며 훈련을 하는데 이재훈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사업을 잘 수행하여 영육간에 사람 살리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3.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 감사

WHO, 한국대사관, NGO WELL International 이 지난 6월 27일에 삼자 상호협력각서를 맺고 마다가스카르의 지역 사회 보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WHO 마다가스



카르 지부와 웰 인터내셔널 지부가 협력하여 프로포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지혜와 능력 주셔서 프로포절이 완성되고 선정되어 2025년부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4. 여호와이레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조이팁 아이들 이야기가 전해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6월이 되며 날이 추워져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하였는데 정말 갑자기 2018년에 촬영되었던 인간극장을 재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아이들을 도와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이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이 운동하며 말씀 보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 5. 무른다바, 일라카에스트, 트라트라마르나, 안자베투 룡구 지역교회 세례식

지난 부활절 기간 동안 지역교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주님을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먼저 가셔서 이들에게 참 빛이 되어 주소서.

### 6. 온드림 프로젝트 진행

붕굴라바병원에 안과 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백내장환자를 수술시켜 빛을 보게 하는 사역을

2025년까지 훈련된 현지 의료인을 통해 매년 200여 명의 환자를 수술해주게 됩니다. 이 일로 환자들과 가족이 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 <키다리아저씨 사역>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GIC, 웰 인터내셔널의 협력으로 신경 섬유종 환자를 한국에 보내어 수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든 필요한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소서.



#### <오지 교회 개척 및 교회와 지도자 지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 지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히 잘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

1. 안자베투룡구 교회(테테, 마스키나, 칸드레, 위르뱅, 마르셀랭)
2. 일라카에스트, 트라트라마르나교회 (조세와 모데스타)
3. 무른다바 교회들(마디, 불라미시): 개척된 교회의 건축을 준비
4. 바바테니나 교회(멜시야드)

#### <안드라미아르나 빈민청소년 축구교실과 장학사업>

1. 축구교실 아이들과 코치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깊어지게 하여주시고 산 소망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2. 장학생 모니카, 안자라수아, 라바카, 프랑클린, 만드레시, 미우라, 미수, 제퍼슨, 저희 팀원들의 자녀 19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이 땅의 귀한 지도자로 자라게 하소서.

#### <마다가스카르 선교센터 건축>

- 주님 주신 땅에 센터가 건립되어 오고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주신 달란트를 이 백성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 하늘의 평안과 평화가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 산 소망되신 주님을 기대하면 이 땅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센터가 되도록.
- 한동대 손성찬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스터플랜과 설계를 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도록.
- 건축의 장인들, 신뢰로운 현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주소서.

#### <이재훈·박재연 선교사와 준행, 지행, 진행 가족을 위하여>

-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온 가족이 되게 하소서.
- 두 어머니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주님 주시는 화평가운데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 아틀란티지부, 조산병원 ‘뷰나키리 예수병원’ 건축 시작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아틀란티지부(지부장 이경호)는 DR 콩고 피그미족을 위한 조산병원 ‘뷰나키리 예수병원’ 건축을 시작하였다. 지난해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뉴스레터 2023년 여름호에서 최관신 선교사의 보고를 받고, 지부 모임에서도 보고한 후 이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왔는데, 아틀란티지부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4만 8천달러를 지원하였다.

아틀란티지부는 또한 지난 7월 16일에 모임을 갖고 그간의 사역과 경과를 보고하고, 건축 진척과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틀란티지부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뷰나키리 의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서부에 미국본부의 역할을 하는 IA지부와 산호세/샌프란시스코, 동부에 뉴욕/뉴저지, 시카고, 아틀란티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내년에 워싱턴DC지부가 출범하면 동부를 아우르게 되어 동부와 서부본부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데, 각 지부의 구성원과 관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명성의과대학 체육관 건립 완공, 이사장 김홍식 장로의 헌신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김홍식 장로의 후원으로 건축을 시작한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체육관이 최근 완공을 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이 아프리카미래재단과 함께 명성의과대학과 명성병원을 방문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부는 에티오피아

기후에 학생들의 야외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점을 보고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대학에 10만 달러를 기부하고, 우리 재단에 4만 2천 달러를 기부하면서 모두 14만 2천 달러를 드려 체육관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체육관 건축은 대학 당국과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일로 건축에 합의한 후 바로 설계와 함께 6개월의 준비와 공사 끝에 지난 6월 중순 체육관을 준공하였다. 명성의과대학은 8월경 대학의 행사와 연계하여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AFF, 중요사역지 비전트립 실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AFF와 함께 아프리카 중요 사역지 탐방 프로그램을 가졌다.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실시된 중요사역지 비전트립은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등 세 개 나라의 사역지 열 두 곳을 둘러보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탐방에 포함된 선교지와 사역은 잠비아 치소모 병원, 제라 보건대학, 어린이교회, 세포합창단, 음악학교 사역, 짐바브웨의 AFF센터, 레인함센터, 하라레 국립병원 소아과 병동과 아동재활병원, 말라위의 영광 크리스천 스쿨, 에바다 치과병원과 치대 방문, 그리고 말라위 백영심 선교사와의 간담회 등이었다.

이 비전 트립은 미국 AFF 동부본부 개철을 준비중인 열린문장로 교회 김용훈 목사와 선교위원회 세 분 장로님들과 한국 AFF 박상은 대표, 김억 사무총장, 박은지 팀장, 그리고 미국 AFF 나삼진 사무총장 등이 참가하였다. 미국 동부본부는 9월 실무준비를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AFF를 위한 캠프 코랄, 제15회 사랑의 음악회 개최

2020년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열리지 못했던 KAM 코랄(단장 Ted Kim) 제15회 정기연주회가 6월 17일 뉴라이프 커뮤니티교회(Norwalk, C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주회에서는 이수정 지휘, 고윤아 반주로 네 스테이지에 걸쳐 Cantate Domino, Way Maker 등 14곡을 선보였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연주회에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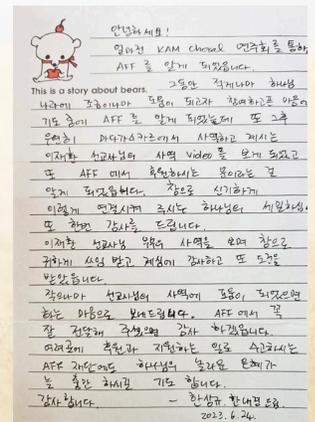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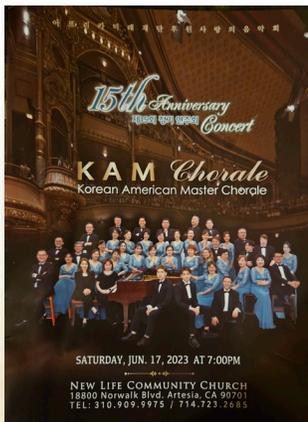
이날 정기연주회에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연주 중간에 헌금 시간도 가졌으며, 연주회 후 브레나파교회 김성남 목사의 축도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이날 영감 하원의원이 캠프 코랄이 지역사회 봉사한 기여한 것을 기념하여 상장을 전달하였고, 대원들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되었다.

한편 이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위한 헌금을 하였는데, 모두 5,040 달러가 드러졌다. 김홍식 이사장은 연주회 후 특별 식사로 대원들께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 한상규·한내경 부부 마다 이재훈 선교사를 위한 특별헌금

한상규·한내경 부부는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 사역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며 만 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들 부부는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의 사역 비디오를 보고, 정기연주회에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회보를 통해 이들이 AFF에서 후원하는 선교사인 것을 알고 연주회 후 이 선교사를 위한 헌금 만 달러를 보내왔다. 미국 AFF는 이 선교사에게 보내 뜻을 전하고, 헌금을 보내 사역을 지원하게 되었다.



## 중요사역지 탐방을 마치고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아프리카미래재단(Africa Future Foundation)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의료와 보건, 교육과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NGO이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AFF와 함께 중요사역지 탐방 비전 트립을 가졌다. 지난 6월 27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이번 비전탐방은 AFF 미국동부 본부 개설을 준비하며, 워싱턴 DC에 있는 열린문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 그리고 AFF한국 대표, 사무총장, 팀장이 함께 하였다.

그 첫 일정으로 잠비아 루사카 치소모병원(Chisomo Hospital)과 제라보건대학(Zera International College of Health Science)을 방문했다. 이곳은 전미령 허일봉 선교사 부부가 3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선교사들이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작한 작은 크리닉이 치소모병원으로 발전했고, 3년 전 펜데믹이 시작될 무렵 개교된 제라보건대학이 이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방학중이었지만,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방문단을 위해 특별 연주 등 두 시간 동안 환영의 시간을 준비해 주었다.

작은 시작이었던 제라보건대학은 이제 간호학과의 첫 졸업생을 내었고, 준의사와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우수한 보건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AFF에서 강의동과 강당동을 건축하여 지난해 완공하였는데, 시설이 좋아 수도 루사카에서도 좋은 편이라 보건부 국가고시를 치루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가난한 나라라 학비 마저 낼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은 등록금 평균 50% 정도를 지원하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잠비아 리빙스톤에 있는 세포합창단 선교와 어린이교회였다. 김홍규 선교사는 그동안 세 학교를 건축해 현지에 이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음악학교 개교를 위해 건축하고 있었다. 희망이 없는 사회이지만, 김 선교사는 음악성이 뛰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악과 찬양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고, 장차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짐바브웨 전진경·강동원 선교사 사역이었다. 전 선교사는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있는 국립병원 소아과 의사로, 또 코이카와 아프리카미래재단 등의 기금으로 설치한 아동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 선교사는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이 12년 동안 헌신한 결과 아동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재활병원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부 의사가 열악한 환경의 헌신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AFF짐바브웨 지부가 운영하는 레이함센터도 방문하였는데, 지금은 담당 교사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여 그림 공부와 학습을 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미국의 좋은 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하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일에는 다수 선교사와 현지 한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건물을 갖춘 짐바브웨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녁에는 선교사 초청 만찬회를 가져, 땀 흘리는 선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여정으로 사흘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말라위를 방문하고, 백영심 선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호사 출신 독신 여선교사로서 릴롱웨에서 지난 30년 이상 간호대학과 병원을 설립하는 등 놀라운 사역을 한 분이다. 지금은 수도 릴롱웨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지역에서 여고와 여자대학을 설립을 시작했다. 9월에는 영부인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개교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말라위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다.

이번 선교여정은 다른 때와 달리 국경을 지나면서 빅토리아 폭포와 말라위 호수 방문은 보너스와 같았다. 말라위가 이렇게 큰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개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세계 최하위 가난한 나라로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아프리카 3개국 중요사역지 탐방을 마치며, 아프리카 곳곳의 어려운 나라에서 이틈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응원하며 감사한다.

## 분기 결산

### 아틀란타 지부(1/4-2/4분기)

#### 수입부

2월	50,000
5월	7,400
6월	4,300
합계	61,700

사업비/잠비아(사역)	3,000
말라위(백영심)	3,000
행정비/인건비 등	3,334.50
우편료	383.68
주정부/CPA	875
회보 간행비	2,207.75
행사비	1,493.44
합계	14,294.37

사업비(DR 콩고 조산병원 건축비)	48,000
은행 fee	165
합계	48,165

## 중요사역지 탐방을 마치고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아프리카미래재단(Africa Future Foundation)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의료와 보건, 교육과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NGO이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AFF와 함께 중요사역지 탐방 비전 트립을 가졌다. 지난 6월 27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이번 비전탐방은 AFF 미국동부 본부 개설을 준비하며, 워싱턴 DC에 있는 열린문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 그리고 AFF한국 대표, 사무총장, 팀장이 함께 하였다.

그 첫 일정으로 잠비아 루사카 치소모병원(Chisomo Hospital)과 제라보건대학(Zera International College of Health Science)을 방문했다. 이곳은 전미령 허일봉 선교사 부부가 3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선교사들이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작한 작은 크리닉이 치소모병원으로 발전했고, 3년 전 펜데믹이 시작될 무렵 개교된 제라보건대학이 이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방학중이었지만,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방문단을 위해 특별 연주 등 두 시간 동안 환영의 시간을 준비해 주었다.

작은 시작이었던 제라보건대학은 이제 간호학과의 첫 졸업생을 내었고, 준의사와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우수한 보건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AFF에서 강의동과 강당동을 건축하여 지난해 완공하였는데, 시설이 좋아 수도 루사카에서도 좋은 편이라 보건부 국가고시를 치루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가난한 나라라 학비 마저 낼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은 등록금 평균 50% 정도를 지원하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잠비아 리빙스톤에 있는 세포합창단 선교와 어린이교회였다. 김홍규 선교사는 그동안 세 학교를 건축해 현지에 이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음악학교 개교를 위해 건축하고 있었다. 희망이 없는 사회이지만, 김 선교사는 음악성이 뛰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악과 찬양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고, 장차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짐바브웨 전진경·강동원 선교사 사역이었다. 전 선교사는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있는 국립병원 소아과 의사로, 또 코이카와 아프리카미래재단 등의 기금으로 설치한 아동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 선교사는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이 12년 동안 헌신한 결과 아동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재활병원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부 의사가 열악한 환경의 헌신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AFF짐바브웨 지부가 운영하는 레이함센터도 방문하였는데, 지금은 담당 교사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여 그림 공부와 학습을 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미국의 좋은 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하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일에는 다수 선교사와 현지 한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건물을 갖춘 짐바브웨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저녁에는 선교사 초청 만찬회를 가져, 땀 흘리는 선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여정으로 사흘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말라위를 방문하고, 백영심 선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호사 출신 독신 여선교사로서 릴롱웨에서 지난 30년 이상 간호대학과 병원을 설립하는 등 놀라운 사역을 한 분이다. 지금은 수도 릴롱웨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지역에서 여고와 여자대학을 설립을 시작했다. 9월에는 영부인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개교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말라위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다.

이번 선교여정은 다른 때와 달리 국경을 지나면서 빅토리아 폭포와 말라위 호수 방문은 보너스와 같았다. 말라위가 이렇게 큰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개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세계 최하위 가난한 나라로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아프리카 3개국 중요사역지 탐방을 마치며, 아프리카 곳곳의 어려운 나라에서 이틈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응원하며 감사한다.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http://www.africaffusa.org)

